

경제

위기의 광주 LED산업

핵심기술만이 살 길

나만의 기술로 틈새시장 노려라

대기업의 잇단 진출과 단순 조립형 조립·응용업체가 대부분인 편중된 산업 구조는 광주 LED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려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급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 LED조명산업에 적극 참여했던 LED 선도업체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고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을 가미한 LED아트나 IT·제어기술을 결합한 보안등, 수송용·농업용 조명 등 자신만의 특화된 기술로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장도 "LED조명에는 SMPS(전압변환장치)라는 장치가 필수적인데 광주지역에서 이 장치를 생산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런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LED업체가 자생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공공분야의 LED조명 보급률을 높여 중소기업들의 기초체력을 다져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LED아트·IT 등 접목 보안등·농업용 등 생산

지역업체 컨소시엄 구성 해외시장 개척 나서야

이 중소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상인 LED미니클러스터 회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LED시장은 공공분야마저도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공시장을 열어 중소기업들의 기초체력을 키워 특수조명 분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한 LED업체 대표는 "LED조명은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대체하는 대량생산 품목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없다"면서 "LED조명 보급률이 높아지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조명기구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체들 공동 대처도 = 중소기업체들 간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LED보급협회가 추진 중인 '국민보급형 LED조명사업'에 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공동 구매하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기업 '지앤알' 부도

광주 광산구 양동에 본사... 4월 코스닥서 퇴출

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광주지역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 기업 (주)지앤알이 부도처리됐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양동에 본사를 둔 (주)지앤알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담가거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사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토탈출수선을 제공하며, 2008년 매출 469억원 영업이익 16억원, 2009년 매출 429억원 영업이익 44억원 등을 기록,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산학연 사업 108개 선정 58억 지원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2일 2011년도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108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9개 과제를 선정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국제사업 2개와 지역사업 19개, 광주캠퍼스는 지역사업 7개 등 총 27개 사업에 12억8723여억원을 지원받는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농지매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인건이 매각경쟁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011.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부좌관 박광익

태양광기업 '지앤알' 부도

광주 광산구 양동에 본사... 4월 코스닥서 퇴출

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광주지역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 기업 (주)지앤알이 부도처리됐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양동에 본사를 둔 (주)지앤알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담가거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태양광기업 '지앤알' 부도

광주 광산구 양동에 본사... 4월 코스닥서 퇴출

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광주지역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 기업 (주)지앤알이 부도처리됐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양동에 본사를 둔 (주)지앤알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담가거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태양광기업 '지앤알' 부도

광주 광산구 양동에 본사... 4월 코스닥서 퇴출

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광주지역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 기업 (주)지앤알이 부도처리됐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양동에 본사를 둔 (주)지앤알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담가거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태양광기업 '지앤알' 부도

광주 광산구 양동에 본사... 4월 코스닥서 퇴출

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광주지역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 기업 (주)지앤알이 부도처리됐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양동에 본사를 둔 (주)지앤알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담가거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